



섬유산업의 QR 시스템 구축

장 석 환

1. 서 언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의 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WTO, OECD, IMF 등 익숙하지 않았던 국제 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개방과 자유화 그리고 정부지원의 축소 등으로 우리 기업은 극심한 구조조정을 통해 홀로 서기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기업이 대처해 나가야 할 분야가 정보화의 물결이다. 정보사회의 성숙에 따라 모든 기업은 생산, 유통 등 경영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섬유산업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은 1985년부터, 일본은 1993년부터 정보화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QR(Quick Response) 시스템을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와 진전을 거두고 있다. 우리 섬유산업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여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QR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야겠다.

2. QR의 필요성

섬유산업이 지난 30년 동안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도 수출, 고용, 국제수지 개선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섬유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고규제 등 고비용 경제구조 외에도 생산인력 부족,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신기술, 신소재 개발력 취약, 유통

구조의 후진성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의 약화, 외제 의류의 수입 급증,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섬유산업의 근본체질을 바꾸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면 시설의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합리화 정책, 정책적으로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업발전법의 제정, 생산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기능인력의 도입 등이다.

우리 섬유산업은 세계 제4위의 섬유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소재, 신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 분야에서는 이태리, 독일, 불란서 등 선진국에 밀리고 있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등 동남아 제품에 밀려 힘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세계 섬유시장 구조는 생산자의 대량생산에 의한 수요를 창출하는 product out 방식에서 정확한 수요자의 needs에 근거하여 기획생산하는 market in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누가 얼마나 빨리,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느냐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QR 시스템은 바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고 우리도 뒤늦게나마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3. 외국의 사례

미국은 외국 수입품으로 부터 국내 의류시장의 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순수 민간차원

Quick Response System for the Textile Industry / Sokan Chang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6층, Phone: 02)528-4001, Fax: 02)528-4055

에서 QR 시스템 도입에 착수하였다. 원면에서부터 블루진이 매장에서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여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실제 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은 11주, 대기시간 55주, 합계 66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계의 정보공유를 통해 대기시간 55주를 11주로 단축함으로써 44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QR 시스템의 요체다. 이를 통해 미국 섬유업계는 과거 10년동안 11조6천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QR 프로그램의 전문 연구기관인 TC(Textile/Clothing Technology Corp)를 설립하였으며, 지금은 상무성과 에너지성 등 정부기관과 많은 연구기관에서 참여하는 한차원 높은 DAMA(Demand Activated Manufacturing Architecture)라는 산업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QR 시스템 구축에 자극받아 1993년부터 통산성의 강력한 의지로 일본섬유산업에 맞는 QR 시스템 구축에 나서서 섬유관련 단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류상품의 표준코드를 JAN(Japan Article Number)으로 정하여 POS를 통한 유통정보화를 실현하고 있고, 기업간 거래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표준시안을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QR 사업을 주관하는 섬유공업구조개선사업협회가 QR 코드센터로 바뀌어서 QR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섬유산업의 혁신전략인 TIIP(Textile Industry Innovation Program) 정책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

4. 우리의 현실

우리 나라 섬유산업의 QR에 대한 관심은 불과 2년전 부터 단체나 대기업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하여 이제는 섬유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구조개선책으로 QR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인

식은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기초가 되는 상품분류번호, 전자거래표준, 치수, 규격, 색상 등 각종 표준의 정비가 매우 미비된 실정이다. 또한 관련 업계간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partnership을 통한 정보공유개념의 확립은 더욱 요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판매, 유통분야에서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상당한 수준에 달한 기업이 많다. 그러나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러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여러 개의 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부가비용과 수고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5. 당면과제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QR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다. QR 시스템은 크게 보면 섬유산업의 생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혁신프로그램이고 작게 보면 단위업무의 전산화이기 때문에 QR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 QR 시스템은 개별기업이 생산, 판매 등 분야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프로그램을 전사적인 종합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종업계와 관련 섬유업계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형 QR 시스템의 모델 개발이다. 우리보다 먼저 QR 시스템을 추진한 미국과 일본은 각각 전혀 다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수요자의 needs를 근거로 제품을 기획, 생산하는데 비해 일본은 생산자의 예측을 근거로 기획, 생산하는 반대방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QR 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언제 어디까지 해야 하겠는가, 또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섬유산업의 생산, 유통구조와 관행 그리고 기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분야 및 수준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같이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구축이다. 생산통계는 물론 소비자 통계 그리고 각

종 표준의 정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섬유산업의 QR 추진을 위해서는 유능한 전산전문가는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은 섬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요즘 정보계통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분야를 특화하려는 정보통신회사가 적지 않게 출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업계의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아무리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도 업계가 partnership에 의한 공존의 인식을 가지고 참여해 주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의 initiative에 의해 거래업체간, 이업종간의 협력사업이 자생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겠다.

6. 실천계획

섬유산업연합회는 정부, 관련단체, 섬유업계와 협력하여 우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우리 현실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98년도에는 QR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의류의 color나 규격, size에 대한 표준과 전자적

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데 필요한 EDI 표준을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정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표준이 실제 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제도에 지원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또 업체간의 partnership 조성을 위해 관련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QR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QR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교육을 업계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서 이미 QR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일본의 QR 코드센터같은 추진기관과의 정보교류채널을 개설하여 QR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국제협력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98년도를 QR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시점으로 하여 2002년까지 5년동안 우리 나라 섬유산업에 맞는 QR 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이후에는 전섬유업계로 확산하는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QR 시스템은 개별기업이나 업종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전섬유업계의 과제이며,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